AG 금메달·벤투호 효과, K리그로 스며들다 | 27R 평균관중수 4203명→28R 평균관중수 8275명

두배 늘어난 K리그 관중 …이게 얼마만이야?

인천구장 7282명 올해 홈경기 최다
문수·상암도 1만 3천여명 구름관중
팬심에 응답할 K리그 장기비전 숙제

FC서울과 대구FC의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28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1층 관중석이 팬들로 가득하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 이어 축구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파울루 벤투 감독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K리그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상암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프로스포츠의 존재 이유는 팬이다. 한국축구는 9월에 그걸 뼈저리게 느꼈다. 축구국가대표팀 벤투 감독의 A매치 데뷔전에 팬들은 만원관중으로 힘을 실어줬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 것이다. 한국축구의 장기간 침체 분위기는 그렇게 반전에 성공했다.

관건은 달아오른 열기를 프로축구 K리그가 이어받을 수 있느냐다. 프로축구는 한국축구의 저변확대는 물론이고 선수육성의 젖줄이다. 대표팀의 축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K리그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A매치 이후 처음 열리는 주말(15·16일) K리그1 28라운드에 관심이 쏠렸다.

사실 올 시즌 K리그 관중 기록은 민망할 정도다. 9월 A매치 기간 이전인 27라운드까지 평균 관중은 5178명이다. 매년 줄어든다며 걱정했던 지난해 평균관중(6500명)보다도 더 줄었다. 1만 명을 넘은 구단도 2개(전북·서울)뿐이다. 개막전 6경기 평균관중(9142명)을 넘는 라운드도 없었다. 9라운드에선 1965명으로, 2000명선도 깨졌다. 20라운드 이후엔 5000명을 넘기기도 버거웠다. A매치 직전 라운드인 27라운드의 평균관중은 4203명이다. 프로축구 관계자들에게 관중 수를 묻는 게 미안할 정도였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갑자기 기회가 왔다. 대표팀 덕분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포함해 각 구단은 이런 훈풍을 살리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안간힘을 썼다. 아시안게임이나 A매치에 출전한 스타급 선수를 앞세워 사인회와 축하공연 등을 하면서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관중수를 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벤투 효과를 본 게 확실하다.

인천-수원전이 열린 인천전용구장에는 7282명이 찾았다. 이는 올 시즌 홈경기 최다 관중이다. 종전 최다는 3월 10일 홈 개막전의 7160명. 올 시즌 평균관중은 3809명이고, 27라운드에선 4460명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이날 비록 비겼지만, 관중들의 응원 덕분에 올 시즌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는 게 인천 코칭스태프의 평가다.

울산과 포항의 159번째 '동해안 더비'가 열린 문수월드컵경기장에도 1만3224명의 관중이 찾았다. 울산 구단의 노력 덕분에 올 시즌 평균관중(6692명)을 크게 웃돌았다. 전북-제주전이 열린 전주에서도 1만1190명을 기록했다. 서울과 대구가 맞붙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엔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1만3243명의 팬들이 찾았다. 27라운드 관중(6392명)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K리그 28라운드의 평균관중은 8275명으로, 27라운드(4203명)보다 크게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분위기 살리는 데 성공했다. K리그 관계자는 "러시아월드컵 이후 각 팀들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득점과 실제경기시간이 조금씩 늘었다. 심판운영에도 변화를 줬다"면서 "대표팀 덕분에 프로축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프로에서 가장 이상적인 장면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이를 본 팬들이 다시 경기장을 찾고, 그 응원에 힘입어 선수들이 힘을 내는, 그런 선순환 구조다. K리그의 목표이기도 하다. 단박에 오른 관중 수는 단박에 꺼질 수도 있다. 장기적인 플랜과 비전을 세워야하는 이유다.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만큼 이제부터 탄탄하고 흔들림 없는 팬층을 구축해가는 K리그가 됐으면 한다.

상암 |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빅게임 강자' 박상현, 22언더파 262타 KPGA 메이저대회 신한동해오픈 우승…4가지 특별한 의미와 각오

시즌 3승 박상현 "다음 목표 아시안투어 상금왕"

1 최종일 '노보기' 신들린 샷
2 11년만에 코리안투어 3승
3 생애 첫 대상·상금왕 박차
4 10월 PGA 출전권도 확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에서 11년 만에 '3승'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올해로 프로 14년차를 맞는 베테랑 박상현(35·동아제약)이다.

박상현은 16일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파71·7252야드)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2억원·우승상금 2억1600만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만 8개를 몰아치는 맹타 끝에 최종 합계 22언더파 262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날 우승으로 올 시즌 가장 먼저 3승 고지를 밟으며 생애 첫 대상과 상금왕 등극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코리안 투어에서 한 시즌 3승을 달성한 사례는 2007년 김경태(32)와 강경남(35) 이후 11년만이다.

2005년 프로 데뷔 후 최근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에 전념하기도 했던 박상현은 그동안 1인자 혹은 왕좌라는 수식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2009년과 2014년 2승씩을 올렸지만 각각 배상문(32)과 김승혁(32)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상과 상금왕 자리를 내줘야했다.

절치부심한 박상현에게 2018년은 기회의 해였다. 최근 2년간 왕좌를 지켰던 최진호(34·현대제철)가 올 시즌 유러피언 투어로 진출하면서 1인자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베테랑 박상현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올해 굵직한 대회를 차례로 휩쓸면서 대상(4412점)과 상금왕(7억9006만원) 선두 자리를 압도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다. 특히 상금 규모가 가장 큰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 6월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이상 총상금 10억원)에 이어 총상금 12억원의 신한동해오픈까지 접수하면서 메이저급 대회에서 유난히 강한 면모를 뽐내는 중이다. 세 대회에서 챙긴 우승상금만 무려 6억1600만원이다.

박상현은 3승 달성 여부가 걸린 신한동해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신들린 샷 감각을 뽐냈다. 그린과 페어웨이는 물론 러프와 벙커에서도 완벽한 샷을 구사하며 단 한 차례의 보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2위 스캇 빈센트(26·짐바브웨)의 추격마저 잠잠해진 17번 홀(파3)에선 장거리 파 퍼트를 성공시킨 뒤 포효하며 자신의 3승을 자축했다.

"굉장히 어려운 코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적은 스코어를 낼 줄 몰랐다. '미친 기분'이 들었다"며 활짝 웃은 박상현은 기자회견 도중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아시안 투어 상금 부문 2위와 코리안 투어 대상 포인트 1위 자격으로 다음달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CIMB 클래식과 더CJ컵@나인브릿지 그리고 월드골프챔피언십 HSBC 챔피언스 출전 티켓을 얻었다. 박상현은 이에 대해 "PGA 투어는 경험에 무게를 두려고 한다. 당분간은 일본 무대보다는 코리안 투어와 아시안 투어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 목표는 아시안 투어 상금왕 등극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천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 박상현이 16일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한 뒤 환호하고 있다. 그는 KPGA 코리안 투어에서 11년 만에 시즌 3승을 달성해냈다.
사진제공 | 신한금융그룹